

헤테로토피아로서 퀘벡: 퀘벡의 분리주의에 관한 한 해석



이 용 승

제1저자
대구대학교/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leeyongseung@daegu.ac.kr)



김 영 진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whitehead1126@daegu.ac.kr)

국문요약

이 글은 최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리주의 사례를 퀘벡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다른 국가도 유사하겠지만 특히 퀘벡의 분리 독립 문제는 캐나다의 국가성 유지에 관건이 된다. 1980년과 1995년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현재는 독립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퀘벡의 독립은 휘발성이 강한 만큼 언제든지 부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연구는 퀘벡의 분리 독립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분석과 달리 공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퀘벡을 헤테로토피아로 규정하고 혼종성과 저항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퀘벡의 분리 독립을 분석한다. 혼종성을 둘러싸고 그것을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활용하려는 주류, 자신만의 개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질성을 심화하려는 비주류의 논의를 대비시켰고, 퀘벡을 근간으로 주류의 권력과 지식에 저항하는 소수자의 투쟁과 오히려 그러한 특질이 주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설적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힘의 각축을

비교적 간단한 도식을 통해 퀘백의 미래를 분리 독립, 분리된 사회, 현상유지, 갈등 고조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캐나다, 퀘백, 퀘백의 분리 독립, 푸코, 헤테로토피아

I. 관점의 선택

퀘백의 분리 독립 문제는 캐나다의 국가성(Statelessness) 유지에 관건이 되는 사안이다. 식민과 이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로서 캐나다는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 혹은 시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소수 민족이 특정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의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은 캐나다의 국가 통합성 유지를 위해 대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1995년 두 번째 퀘백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50.6%의 독립 반대)로 독립이 부결된 것은 이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¹⁾ 현재는 또 다른 주민투표를 위한 가시적 움직임은 없고, 다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법률(Clarity Act, 2000)의 해석을 둘러싸고 교착 내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다. 향후 “연방정부가 퀘백주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퀘백주의 분리 독립 문제는 다시 쟁점화 될 수 있다.”(김수용 2017, 169). 따라서 퀘백주는 캐나다 내부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퀘백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민족주의 특성은 로마 가톨릭교회로 대변”(Meadwell 1993, 205)된다. 가톨릭교회는 소규모 지방 단위에서 프랑스계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였고, 보다 크게는 퀘백 전체의 색채를 결정하는 요소였다. 그것은 프랑스계 문화를 유지하는 보루로서 기능하기도 했으나 변화를 지연시켜 민족주의가 분출하는 것을 막는 상호 모순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퀘백의 독립을 향한 분리주의 열정과 운동은 1960년대 조용한 혁명의 시기를 겪으며 서서히 부상하여, 1976년 분리 독립을

1) 다만 퀘백의 독립이 새로운 제도에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새로운 변수가 필요하다. 2016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퀘백의 82% 응답자(불어계 73%)는 “궁극적으로 퀘백은 캐나다에 머물러야 한다.”는 언급에 동의했으며, “퀘백 주권 문제는 확정되었으며 퀘백은 캐나다에 남을 것이다.”라는 언술에는 64%의 퀘백 응답자가 동의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자에는 84%, 후자에는 6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출처: CBC, <https://goo.gl/w5HsDc> (검색일: 2018. 01. 05.).

정강정책으로 하는 PQ(Parti Québécois)의 집권으로 본격화되었다. 퀘벡의 분리주의 부상에 대한 정치경제적 설명은 두 가지로 나뉜다(조찬수 2005, 384-7). 첫째는 ‘내부 식민지론’으로 경제적 부의 배분이 민족 경계와 일치하는 것이 근거로 제시된다. 경제적으로 열등한 처지에 처한 불어계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욕망이 독립을 향한 욕구로 분출되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조용한 혁명을 통한 상층 주도의 근대화가 신중단계급을 양성하였고, 이들이 분리주의 경향을 고조시켰다고 보는 시각이다. 퀘벡에서 분리주의의 ‘부상’에는 두 가지 설명이 유효하지만 독립을 향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분석이 뒤따른다.

퀘벡은 1980년 5월 처음으로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였고, 1995년 10월 2차 주민투표를 실행하였다. 1차 투표에서 주정부에게 독립에 관한 협상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40.5%, 반대는 59.5%였다. 2차 투표에서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들어 근소한 차이(49.4% 대 50.6%)로 퀘벡 주권에 대한 제안은 부결되었다. 결과의 원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분석으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는데, 사회학적 설명과 정체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전자는 사회-인구학적 특질, 예를 들자면 모어(mother tongue)라든가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말하고 후자는 퀘벡인, 캐나다인 혹은 불어계 캐나다인 등 유권자가 자신을 어느 집단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가 하는 요인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Nadeau et al. 1999, 525).

이 연구는 퀘벡 분리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의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으로서 퀘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택한 이유는 “공간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실재로 구현되는데, 공간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돌아가야 올바르게 이해되고, 반대로 사회적인 것은 공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올바른 이해를 구할 수 있”(조명래 2013, 12)기 때문이다. 기왕의 퀘벡에 대한 연구 또한 공간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포하지는 않았다. 그 공간 또한 주로 하나의 주(州)로 분류되는 물리적 공간으로 퀘벡에 주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민들의 분리 독립 의지와 그 경향, 분리 독립 열정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민족주의 정당의 전략과 부침, 주정부의 운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및 협상 등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이 연구는 퀘벡을 물리적 영토공간이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공간으로서, 그것이 캐나다 전체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이는 퀘벡을 담론 혹은 상징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 연구는 푸코(M. Foucault)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개념에 의지하여 퀘벡의 분리주의 지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퀘벡의 분리 독립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사회, 모든 문명에 존재하면서 그 인간 사회 혹은 공동체를 특징짓는다. 즉 “모든 인간 공동체는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를 갖는데, 인간 사회 혹은 공동체는 자신이 구성하고 설정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종류 혹은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허경 2011, 242). 퀘벡을 캐나다라는 정상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의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로 본다면 캐나다와 퀘벡의 존재론적 위상과 특질, 관계는 어떠한가? 이 연구는 푸코가 제시한 공간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를 원용하여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모든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역설적 공간으로서 질서(ordering)와 그 질서가 생산하는 지식(knowledge)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이다.”(Topinka 2010, 55). 존재론적으로 헤테로토피아를 단지 여타의 공간과의 관계에서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이질성을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이 전체 사회 내에서 가지는 ‘기능’에 주목”(Saldanha 2006, 2084)할 필요가 있다.²⁾ 논문 또한 이러한 언급을 염두에 두어, 헤테로토피아로서 퀘벡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푸코의 논의에 기초하여 헤테로토피아를 분석에 적용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단순히 푸코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³⁾ 푸코 자신도 불충분하게 규정한 헤테로토피아를 그의 핵심 연구 과제였던 지식, 권력과의 관련 하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⁴⁾ 3장과 4장은 분석틀로 새롭게 정리된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에서 퀘벡의 기능과 연방정부와의 관계, 분리 독립 운동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3장과 4장의 논의를 결합하여 5장에서 퀘벡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마지막 6장은 열어둔 결론이다.

Ⅱ. 지식과 권력, 그리고 헤테로토피아

1.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국가 내 인간은 언제나 종교라는 마법적 권력과 정치라는 사법적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다.

2) Saldanha는 같은 쪽에서 “이질성에 따른 얼마간의 불일치와 갈등을 포함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고 지적한다. 박기순(2017, 107) 또한 “개념의 과도한 확장”을 비판한다. 필자가 보기에 헤테로토피아를 원용한 국내의 다수 연구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연구로는 김미경(2014), 박은희(2014), 조혜경(2016), 이경재(2015) 등 참조.

3) 이 글에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가 푸코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4) 저자가 스스로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일관성 있는 틀 속에 넣어 파악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종교가 권력을 지니는 방법은 환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지상이 아닌 초월적 장소에 자리 잡는다. 종교의 측면에서 그것은 천사나 선녀가 머무는 일종의 유토피아 공간이다. 그 공간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보상의 장소로서 상상계에 존재한다. 정치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유토피아 공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톤, 모어, 베이컨 등은 정치 영역에서 환상의 공간을 제시했다.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장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초월적인 기원에 근거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환상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있다. 현실 공간에 대한 실망은 언제나 그에 대항하는 환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푸코는 그런 현실 속의 환상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일종의 비정상의 공간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조화롭지 않은, 달리 말해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 배치가 실제 존재하는 경우를 헤테로토피아라고 한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 그것은 일종의 반공간(countre-espace)이다. 이 반공간,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들.”(푸코 2014, 13).

우리는 현실에서 누구나 그런 헤테로토피아를 안고 살아간다. 아이들이 찾아가는 PC방, 소녀들이 찾아가는 인형의 방, 침대 위나 밑에서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만드는 자기만의 공간 등이 그것이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런 비정상 혹은 반공간을 찾는다. 어른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자리 매겨진 유토피아로서” 헤테로토피아는 일찍부터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에는 정원, 묘지, 감옥, 매춘장소, 신혼여행지, 요양원, 여행지, 식민지 등이 포함된다(푸코 2014, 14).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그런 낯선 환상의 공간을 마주한다. 이러한 낯선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 장소들에서 타자”(푸코 2014, 101)가 되기 때문이다. ‘나’라는 주체의 정체성이 “특이한 위치들의 총체”(들뢰즈 2003, 173)에 지나지 않는다면, 장소는 곧 나에게 새로운 주체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공간 속의 나를 분리해서 보편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물질, 시공간을 결합한 것처럼, 주체 역시 시공간을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내가 타자로 마주서는 새로운 주체의 장소가 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연구, 분석, 묘사하는 체계적인 기술방식을 헤테로토펴로지(heterotopology)라고 하면서 그것의 원리 6가지를 제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것은 모든 문화에 존재한다. 2. 그것은 홍망성쇠를 한다. 3. 그것은 양립불가능한 요소들을 한 장소 속에 품고 있다. 4. 그것은 시간의 분할(slice of time)과 연결된다. 5. 그것은 열림과 닫힘이라는 체계 속에서 작동한다. 6. 그것은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한다(푸코 2014, 49-57).

첫 번째 원리는 신성화된 장소, 축제의 장소, 영속의 장소를 가지지 않은 사회는 없다는

것이다. 역사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대 한반도에서 소도(蘇塗)는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죄인이 그곳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명을 이룩한 서양과 동양의 모든 장소에 일종의 이질적 환상 공간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양식으로 재창출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이다. 일례로 집장촌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 점에서 매춘이라는 환상 공간은, 과거의 방식은 사라졌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 원리는 헤테로토피아가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요소들을 한 공간 속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극장은 이차원의 장소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보게 된다. 또한 얼마 전에 관객들을 열광하게 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저승이라는 환상 공간을 통해 새로운 흥미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이질적이고 상충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함께 내재하는 것이 헤테로토피아의 특징이다.

네 번째 원리는 시간의 분할과 관련되는데, 헤테로토피아는 전통적 시간과 단절할 때 제대로 기능한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시간의 무한한 축적 기획으로서 헤테로토피아라면, 축제의 양식으로 좀 더 가볍고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시간과 연계된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들어가고 나감에 있어서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군대라는 공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열림과 닫힘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감옥의 열림과 닫힘은 죄형에 따라 달라진다.

여섯 번째 원리는 헤테로토피아가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이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식민지이다. 푸코에 따르면, “식민지에는 상상적 가치들이 결부되어 있었으며, 이 가치들은 확실히 헤테로토피아의 고유한 위광에 빚지고 있다.”(푸코 2014, 24). 즉, 식민지 공간은 현실의 무질서함을 정돈된 공간을 통해 보정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가치의 측면이 함축되어 있다. 보상이라는 가치의 측면은 결국 지식과 권력이라는 두 양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토폴카(Topinka 2010, 64-5)에 따르면, “질서와 충돌하고 횡단하여, 헤테로토피아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산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과 권력의 형성에 참여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질서를 새로이 하고, 재질서화(reordering)는 지식과 권력에 근본이 된다.”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의 원칙은, 특히 3, 6번의 원칙은 현존하는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푸코, 2014, 24)로서의 “다른 공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의제기라는 것은 현실 사회에 대한 거부 혹은 저항을 의미한다. 각 사회는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반대의 공간을 통해 일정한 조화를 이루었다. 매춘의 공간은 현실 공간의 결혼제도와

법적 제도에 대한 반-공간이며 환상의 공간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든 만주의 식민지 역시 일본 사회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대동 사회의 가치를 표방했으며, 그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동학원을 통해 동아시아 식민지의 수재들이 배출되었다. 물론 그 수재들은 식민제국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대동학원은 식민지 인민의 다양한 욕망의 배출구 역할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공간들은 피비우스 피와 같이 제국 내의 현실 공간에 대한 내부자들의 이의제기 혹은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18세기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와 19세기말의 프랑스의 리요테 장군이 만든 군대와 같은 식민지 등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푸코 2014, 24-25). 요컨대 헤테로토피아라는 현실 속의 환상 공간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헤테로토피아의 작동 기저로서 권력과 지식

그렇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헤테로토피아가 작동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곳에도 권력과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지식과 권력을 통해 실행한다. 예컨대 헤테로토피아의 대표적 공간인 감옥은 특별한 권력과 지식이 작동하는 곳이다. 헤테로토피아에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르네 마그리트(René François Ghislain Magritte)의 그림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상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대 미술작품이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지식이야말로 그런 이질적인 관계에 의해 발생하며, 그것은 각각 언표와 환경 혹은 담론과 비-담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18세기 의학에서 인구와 대중은 일종의 환경이라면, 제도, 정치적 사건들, 경제적 실천 과정들은 언표이자 담론이다. 푸코에 따르면, 환경과 언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이질적이다. 즉 양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은 이질적인 두 형식의 맞물림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 2003, 104)는 푸코가 이런 작업을 통해 제시한 지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한다.

보기와 말하기,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 사이에는 이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그 반대로도 말할 수 있다... 언표는 자신만의 고유한 상관적 대상을 가진다. 또한 언표는 마치 논리학이 그러하듯 결코

어떤 사물의 상태 혹은 가시적 대상을 묘사하는 명제가 아니다. 한편 가시적인 것 또한 현상학이 그러하듯 결코 언어 안에서 현실화되는 어떤 역능의 시니피에, 무언의 의미가 아니다.

가시적인 환경은 그 자체의 질서를 갖고 있으며, 담론의 언표 역시 그 자체의 질서를 갖고 있다. 양자는 상호 이질적인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주종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스피노자가 사유와 연장을 평행으로 보았듯이, 환경과 언표는 평행적이다. 그것은 어떠한 우열 관계도 없는 이질적인 것이다. 감옥 역시 그런 이질적인 지식의 배치이다. 푸코(2004, 393)에 따르면, “모든 장치는 가시적인 것과 언표 가능한 것을 뒤섞어 놓은 혼합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금 체계는 담론과 건축, 프로그램과 기제를 하나의 동일한 형상 안에서 결합한다.”

그와 같은 지식이 상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감옥이 우연한 역사의 산물임을 함축한다.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지식은 두 형식의 마주침에 의해 생겨난다. 하나는 감옥이라는 내용과 그 형식에서 비롯되며, 다른 하나는 법이라는 내용과 그 형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각각은 자신의 내용과 형식이 있으며, 그것들은 역사의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 17세기의 감금 방식이 나병환자를 모델로 하는 ‘추방’의 양식이라면, 18세기의 감금 방식은 페스트 환자를 모델로 하는 ‘분할’의 양식에 의해 수행되었다(푸코 2004, 289-294). 범법의 행위 역시 군주나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18세기에 와서는 재산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두었다(푸코 2004, 122-126).

이와 같은 형식은 형식적인 자료와 기능이라는 의미를 통해 말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지식에 대한 푸코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 감옥은 일종의 형식적 자료에 해당하며, 처벌은 하나의 형식적 기능에 해당된다. 이때 처벌은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련과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 유명한 원형감옥은 일종의 형식적 자료에 해당되며, 그것은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타인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을 일정한 제약된 공간 속에서 규율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규율적 기능은 근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감옥과 공장, 병영, 학교, 병원, 식민지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들뢰즈 2003, 60-61). 하지만 이런 형식적 자료와 기능은 결코 서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보기와 말하기, 즉 빛의 체제와 언어의 체제라는 이질적인 형식으로 얹혀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질적인 두 형식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비관계’가 ‘관계’될 수 있는가? 그런 역할을 푸코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개념을 차용해서 힘 혹은 권력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푸코에 따르면(푸코 1998, 305-306), 기존의 권력에 대한 이해는 개인과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푸코는 그런 입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선,

권력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역으로 권력의 산물로 발생하는 것이 개인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국가의 주권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들은 이미 국가 내의 예속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간주된다. 세 번째로 권력을 국가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권력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수의 저항 지점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 푸코에게 권력 관계는 차이와 다양성을 발생시키는 저항이 도처에 존재한다. 넷째로 법에 부여된 특권을 거부한다. 법은 초월적 심급의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다양한 작동기능을 은폐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앞에서 다룬 감금은 18세기 말까지 비용부담과 간수의 전횡 및 대중에 대한 효과의 결여와 같은 이유로 군주의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비판받았다(푸코 2004, 181-182). 하지만 19세기 초부터 규율의 기술과 법의 주체로 개인을 인정하는 권력 사이의 투쟁 속에서 복종하는 주체를 만들고자 하는 규율권력에 의해 감금은 매우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푸코 2004, 196).

이와 같은 규율 권력은 근대 사회의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 계약론은 개인을 주체로 상정하면서 개인들이 이미 예속된 개인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 푸코에 따르면,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예속화의 성과”(푸코 2004, 60)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예속은 행위자들을 억압하거나 구속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행위자들의 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한정하는 것”(서동욱·진태원 2017, 257)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형식의 기능들을 자극하고 유인하며 방향을 바꾸는 그 과정이 권력이 수행되는 방식이다. 『감시와 처벌』에서 시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죄수들의 배치 및 형벌의 배치는 모두 권력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푸코 2004, 245). 여기서 권력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들뢰즈(2003, 114-115)는 푸코에 대한 해석에서 그 권력의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권력의 행사는 하나의 정동(affect)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힘이 그 자체로 다른 힘들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른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극, 야기, 생산, 능동적 활동력을 구성한다. 반면 생산을 위해 결정, 자극, 야기된 존재는 하나의 유용한 효과, 즉 반작용적 영향력을 갖는다. 이 후자는 전자에 대한 어떤 단순한 ‘반격’ 혹은 ‘수동적 반대급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원 불가능한 맞수’라 부를 만한 것이다. 이는 특히 영향을 받을 뿐 저항의 능력을 갖지 않는 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동시에 각각의 힘들은 다른 힘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권력 관계들을 함축하게 된다.

푸코에게 이질적인 두 형식의 지식이 힘 혹은 권력의 기능에 의해 포착되는 것은 니체의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 그것은 이질적인, 상관적이지 않은 지식을 포착하는 힘의 위치의 총체다. 이의제기의 공간에 해당하는 반-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는 권력의 우연한 조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조합을 연결하는 권력의 힘에 의해 하나의 질서로 자리 잡는다. 그 질서의 공간은 이의제기의 공간이기에 언제나 '정상 공간'의 질서와 권력,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의 변이를 준비하는 저항의 공간이다. 즉 권력은 피비우스의 띠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 이 저항의 선은 권력관계에서 일종의 생명의 선과 같다. 왜냐하면 현실에 이 환상의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라고 규정하는 감옥, 매음굴, 휴양지, 식민지 등의 공간은 현실 공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선이며, 새로운 생명을 제공하는 권력의 한 축이며, 타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와 그것이 푸코가 말한 권력과 갖는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이하에서는 헤테로토피아로서 퀘벡이 전체 캐나다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Ⅲ. 차이와 혼종성

1. 이질성을 드러내는 공간, 퀘벡

특정 지역 혹은 공간의 이질성과 혼종성(hybridity)을 드러내는 가장 명징한 지표는 인구와 그에 따른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선주민족을 제외하고 인구 전체의 기원이 이주에 있을 정도로 미국, 호주와 함께 대표적인 이민국가이다. 특히 캐나다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민 내부의 이질성 관리 못지않게 인구의 적정선 유지가 국가의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퀘벡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음 [표 1]은 캐나다 연방 전체와 퀘벡 인구의 문화인종 기원을 나타낸 것이다.⁵⁾ 이를 통해 우리는 캐나다 전체의 혼종성과 캐나다 나머지 지역과 또 다른 퀘벡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처: <https://goo.gl/iGe12H> (검색일: 2018. 01. 13.).

[표 1] 캐나다와 퀘벡의 문화인종(ethnic origin) 분포(2016년)

	캐나다	%	퀘벡	%
전체	34,460,065	100	7,965,455	100
애보리진	2,130,520	6.2	359,430	4.5
북미	11,628,535	33.7	4,850,145	60.9
캐나다	11,135,965	32.3	4,647,840	58.3
퀘벡	194,560	0.6	184,005	2.3
유럽	19,683,320	57.1	3,037,890	38.1
영국계	11,211,850	32.5	745,715	9.4
프랑스계	4,680,820	13.6	1,878,795	23.6
캐리비안	749,155	2.2	201,625	2.5
중남미	674,640	2.0	167,275	2.1
아프리카	1,067,930	3.1	382,665	4.8
아시아	6,095,235	17.7	563,150	7.1

* 인구와 구성비 전체 합은 전체 인구수와 100%를 넘어선다. 이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6년 인구센서스(Statistics Canada) 기준 캐나다 전체인구 35,151,728명 가운데 퀘벡의 인구는 8,164,361명(23.2%)이다. 표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기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캐나다 32.3%, 퀘벡 58.3%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퀘벡의 응답률이 비록 캐나다 전체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그들 상당수가 불어계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캐나다 전체와 퀘벡 거주 인구가 응답한 조상의 문화인종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자신의 기원을 '캐나다'로 응답한 비율이 캐나다 전체에 비해 퀘벡에서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대신 영국계라는 응답은 퀘벡이 3배 이상 적고, 불어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두 배 많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바는 퀘벡 인구의 상당수는 자신을 프랑스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캐나다 출신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 모국어 분포를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⁶⁾

6) 통계 수치의 출처는 각주 5와 같다.

[표 2] 캐나다와 퀘벡의 모국어 분포(2016년)

	캐나다	%	퀘벡	%
전체	34,767,255	100	8,066,555	100
영어	19,460,850	56	601,155	7.5
불어	7,166,705	20.6	6,219,665	77.5
비공식 언어	7,321,065	21.6	1,060,830	13.2
다중응답	818,635	2.4	184,905	2.3

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퀘벡에서 불어를 모국어로 응답한 비율은 77.5%이다. [표 1]과 비교해 보면 모국어로 불어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을 프랑스로 분류하지 않은 사람들이 50%가 넘는다. 이들의 선택은 많은 경우 자신의 기원을 '캐나다'로 응답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불어로 ‘canadien’이 처음에는 불어계만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영국계가 자신을 ‘영국계’보다는 ‘캐나다인’으로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Mendelsohn 2002, 75)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⁷⁾ 멘델손(2002, 80)은 30년 동안에 걸친 여러 여론 조사를 참조하여 퀘벡 주민의 정체성을 분석한 바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퀘벡 주민은 자신을 퀘벡인(14%), 퀘벡인 기반 캐나다인(32%), 퀘벡인 이자 캐나다인(30%), 캐나다인 기반 퀘벡인(15%), 캐나다인(7%)⁸⁾으로 규정하였다. 다소 오래된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멘델손의 연구는 퀘벡인의 중첩된 정체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임을 보여준다.

퀘벡은 전체 캐나다에 비해서 다중성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미 퀘벡 내 주류조차도 정체성의 중첩을 내면의 갈등이나 모순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퀘벡의 인구와 문화, 정체성의 혼종성은 자연스럽다. 캐나다와 퀘벡은 모두 인구와 문화의 혼종성을 드러내면서도 퀘벡은 나머지 캐나다 지역과는 달리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다수자(majority)가 존재하고 이들이 지배 엘리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요약하면, 퀘벡은 캐나다의 혼종성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장소임과 동시에 퀘벡 주류의 동일성을 향한 욕망은 캐나다의 다른 공간을 낯설게 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7)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두 번의 주민투표에서 독립이 부결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즉 퀘벡주민은 캐나다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는데 자신들의 선택으로 캐나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주요 정체성의 하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8) 설문지 선택 문항은 Quebec only, Quebecer first but also a Canadian, equally a Canadian and a Quebecer, Canadian first but also a Quebecer, Canadian only이다. 이와 비교하여 인종문화적 기원을 묻은 [표 1]의 응답에서 ‘퀘벡’ 항목이 공히 낮은 이유는 퀘벡이 ‘국가’ 범주보다는 ‘지역’ 범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혼종성을 둘러싼 의미 쟁투

이러한 퀘벡의 혼종성은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보존되고,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퀘벡으로서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부되어야 할 무엇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주류 영국계에게 퀘벡은 역사적 승리의 기억이자 '만들어진 국민'에 기초한 국가라는 캐나다의 속성을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록 방치할 수 없는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그것과 대립하고 있는 ‘공간들을 가시화하고 규정’”(박기순 2017, 118)하는 데, 퀘벡의 이질성은 공간으로서 캐나다를 가시화한다. 그럼에도 퀘벡은 존재 자체로 영국계가 만든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명시적, 묵시적 권력과 지식을 교란하기 때문에 퀘벡의 이질성은 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관리’되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두 개 언어를 기초로 하는 다문화주의는 그러한 의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퀘벡의 불어계는 다문화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통합의 이념으로 제시한다.⁹⁾ 그들이 보기에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의 건설민족(Founding Nations)인 프랑스계를 캐나다에 있는 여러 문화인종(ethnic)의 하나로 격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함축한다. 실제 그러한 의도가 아주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⁰⁾

캐나다 정부는 과격한 분리주의 단체인 ‘퀘벡 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Québec, FLQ)의 테러를 계기로 이중 언어·이중 문화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Bi-Bi Commission)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1967년, 불어의 공용어 인정 및 불어계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왕립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1969년 불어의 공용어 인정, 1971년에는 다문화주의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중 언어의 인정과 다문화주의를 결합한 통합이념의 제시는 퀘벡의 분리 독립 성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수문화인종을 포섭하여 캐나다의 국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전략이었다.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현재까지 캐나다의 통합이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퀘벡의 분리는 통합이념의 실패를 웅변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이념의

9)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추가 설명한다.

10) 당시 연방 총리 트뤼도(P. E. Trudeau)는 의회연설에서 “우리가 두 개의 공식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두 개의 공식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에 비해 더 공식적일 수 없다.”(Lipset 1990, 180)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이중 언어(Bilingualism)는 수용하면서도 두 개의 주요 문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받아들이는 불어계와 영어계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었다.

실패를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퀘벡의 주권국가 수립은 국가 실패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주류로서는 극구 부정되어야 할 경로이다.

불어계가 퀘벡의 혼종성을 거부하고 동일성을 지향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집착과 관련 입법, 독립 추구, 상호문화주의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조용한 혁명의 시기를 지나면서 퀘벡의 분리 독립에 대한 열망은 고조되고 독립을 위한 활동 또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어가 영어에 압도되고, 그로 인해 프랑스계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 자기 문화가 갖는 우월적 지위가 혼종화로 인해 흔들리고, 결국 강제로 흔적이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정체성 집단에게는 공포가 아닐 수 없다. 자기를 규정하고, 타자와 자신을 구분하는 준거가 되는 집단 정체성 기반이 무화될 수도 있다는 미래 경험, 예상되는 미래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류로부터의 절연, 즉 분리와 독립을 구상하게 하였다. 혁명과 내전을 통해 독립의 쟁취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독립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권자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동질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선택된 수단이 언어의 강제적 통합이었다.

언어의 동질성 확보를 목적으로 퀘벡은 1974년, 불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지정하는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 Act)을 입안하였고, 3년 뒤 이를 불어헌장(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 Bill 101)으로 확대하였다. 불어헌장은 “퀘벡지역에서 불어가 유일한 공용어임을 밝히고, 모든 회사는 1980년 말까지 회사이름을 프랑스어로 바꾸어야 하며, 심지어 상품명이나 상품의 구성 성분도 불어로 표기하도록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퀘벡을 비롯한 캐나다 내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부모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영어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용승 2010, 126). 그 결과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퀘벡 불어청(the Quebec Office of the French Language)에 따르면 프랑스어 학교에 다니는 비공식 언어 사용 학생(allophones)은 1971년 14.6%에서 2015년 85%로 증가하였다고 한다(CBC Aug 26, 2017).¹¹⁾

불어헌장의 채택, 혹은 2017년 “얼굴 은폐 금지”(Quebec ban on face covering)는 혼종성을 거부하고, 주류의 동일성을 퀘벡에서 유지,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의 결과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는 푸코가 다섯 번째 헤테로토피아의 원칙으로 제시한 개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항상 고립과 관통(penetration) 두 가지 모두를 위한

11)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bill-101-40th-anniversary-1.4263253>
(검색일: 2018. 1. 19.).

열림과 닫힘의 시스템을 전제”(Foucault 1984)하는데, 그곳은 개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기묘한 배제의 체계”(허경 2011, 249)를 갖는다. 입장(entrance)에 추가적 장벽을 세워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높이는 방식의 배제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추론이 쉽지 않다.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는 1977년 불어현장 채택 이후 영어계 주민의 ‘엑소더스’이다.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퀘벡을 떠난 순이민은 300,705명에 달한다. 특히 불어현장이 채택된 전후인 1976-1981년에는 약 15만 명의 영어계가 퀘벡을 떠났다.¹²⁾ 2016년 현재 퀘벡 주민 가운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하겠다. 이렇듯 퀘벡은 배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이것은 열려있지만 동시에 닫힌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프랑스계가 혼종성을 거부 혹은 약화시키는 동시에 독립의 열망을 신장하려는 노력은, 퀘벡 주민들이 퀘벡, 프랑스계, 혹은 캐나다 등의 특정 공동체에 대해 “충돌하고 겹치는 애착(attach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약했기”(Mendelsohn 2002, 73) 때문에 독립을 성취하는 성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혼종성을 거부하고 동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퀘벡의 상층 엘리트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불어계는 혼종성을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타의 퀘벡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패의 누적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독립을 향한 열망이 다시 분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IV. 권력관계의 표상으로서 퀘벡

1. 지배질서의 교란과 대항헤게모니

퀘벡은 프랑스 혹은 프랑스계의 역사적 패배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17세기 초반 현재의 캐나다 영토에 먼저 들어온 국가는 프랑스였고, “퀘벡은 최초의 프랑스인 정착촌이 만들어진 곳이다.”(문영석 2009, 136). 이미 북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던 영국과 그곳에서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프랑스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의 갈등을 아메리카 대륙에 그대로 재연한 듯한 오랜 기간에 걸친 양 제국의 경쟁은 1760년

12) 출처: <http://www.statcan.gc.ca/pub/89-642-x/2010002/article/section3-eng.htm#n17> (검색일: 2018. 1. 20.).

영국의 최종적 승리로 막을 내렸고, 150여 년에 걸친 ‘New France’의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이용승 2010, 122). 이후 퀘벡주(Province of Quebec), 1791년 헌법 개정에 따른 ‘상위 캐나다’(Upper Canada)와 ‘하위 캐나다’(Lower Canada) 구성, 1840년 캐나다 주(Province of Canada)를 거쳐 1876년 캐나다 연방(Canadian Confederation)이 최종 수립되었다. 프랑스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퀘벡은, 비록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기초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국계의 통치는 반지만 프랑스계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보장받는 독특한 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것이 1960년대 이후 분출한 분리 독립 열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퀘벡은 프랑스계의 역사적 패배를 시현하는 공간이지만 프랑스계의 근거지로 기능하면서 영국계 지배의 합법성을 교란하고 문제화하는 공간이 되었다. 단일 민족국가 혹은 미국과 같이 처음부터 확실한 주류(WASP)가 있던 국가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 주류 민족 혹은 문화인종은 승리와 성공의 기억을 공유한다.- 캐나다는 두 개의 건설민족이 선주민족(First Nations)의 영토와의 영혼-신체적 관계를 박탈하는 가운데 수립된 국가이다. 애보리진의 존재가 이들의 역사적 박탈을 상징하는 것처럼 퀘벡과 그곳에 거주하는 프랑스계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과 흡수, 동화불가능성과 다중성, 혼종성의 역사를 상징한다. 퀘벡이라는 장소와 불어계 문화인종의 신체에 역사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퀘벡은 캐나다의 역사, 즉 특정 민족의 정복과 승리, 패배의 역사를 드러내는 동시에 현재의 질서와 배열(ordering and arrangement)이 역사적 승리자가 부여한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유사한 맥락에서 퀘벡은 역사적 누적으로 형성된 현재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역으로 지금-여기의 권력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권력관계의 변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분리 독립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관계 변동은 힘의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대등한 권력 배분을 포함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분리 독립을 향한 열정의 동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주류인 영국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퀘벡은 역사적 승리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어계에게는 패배의 상징이지만 역사적 승자인 영어계에게 퀘벡은 승리 역사의 축적물이자 상징이다. 이는 박물관이 무한히 집적하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했던 푸코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퀘벡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을 넘어 약탈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 박물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체에서 퀘벡의 독립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낮은 까닭은 퀘벡이 캐나다 연방 전체와 갖는 관계가 말산하는 이러한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지배질서를 교란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퀘벡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독립은 용인하지 않는

캐나다 사람들의 복잡한 심정은 2012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¹³⁾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하 Rest of Canada, ROC)의 응답자들은 퀘벡이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43%(자산이라는 견해는 39%)가 동의했지만 퀘벡이 캐나다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퀘벡이 독립하면 캐나다는 더 좋아지거나 (21%),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0%)이 다수인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ROC 거주 캐나다인들은 퀘벡주의 독립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상요구에 진저리를 내면서도, 또한 독립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독립에는 다수가 반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저항의 공간적 상징으로서 퀘벡이 가지는 위치성을 잘 보여준다. 즉 주류의 질서에 도전하는 공간이기에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면서도 막상 그들의 독립은 캐나다의 존재 이유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반공간’으로서의 퀘벡의 존속이 오히려 캐나다 안정성의 근원이 되는 모순은 이로부터 규명된다.

2. 독립에 대한 연방과 퀘벡의 수렴

“어떤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만드는 결정 요소는 그 공간이 한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 곧 주어진 공간을 다른 여타의 장소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의 이질화 기능”(허경 2011, 250)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지배 질서에 균열을 내는 공간으로서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대항 헤게모니 공간이다 (counter-hegemonic spaces).”(Hetherington 1997, 21; Topinka 2010, 59 재인용). 퀘벡은 이질성을 내포한 일종의 반공간으로서 ROC와 구분된다. 또한 퀘벡은 주류의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자기 나름의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드웰(Meadwell 1993, 215)은 퀘벡 민족주의를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대항 헤게모니는 대안 사회의 육성과 중앙정부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의 일단을 포함한다.”¹⁴⁾ 즉 퀘벡은 대항 헤게모니 공간으로서 불어현장, 상호문화주의 등의 이념과 제도를 통해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여 중앙과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의 대표적인 이념이자 제도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반해 퀘벡만의 통합이념으로 제시된 상호문화주의이다.

2007년 퀘벡주가 설립한 ‘문화 다양성 조정 실천 자문 위원회’(Consultation Commission on Accommodation Practice Related to Cultural Difference, CCAPRCD)는 상호문화주

13) 출처: <http://bit.ly/2nzLcKs> (검색일: 2017. 01. 13.).

14) 이렇게 보면 위에서 다룬 불어현장 또한 퀘벡의 대항 헤게모니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를 퀘벡이 추구할 통합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 요소에 합의한 바 있다. 그것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다문화주의 거부, 동화 거부, 퀘벡 사회의 근본 가치(양성 평등, 세속주의, 불어)에 기초한 통합의 중요성”(Bouchard 2011, fn. 3)이다. 퀘벡의 위 자문위원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상호문화주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세 가지 지점을 공유한다. 즉 상호문화주의는 기존 다문화주의와 동화정책 양자를 지양하면서도 해당 사회가 합의한 근본 가치에 기초한 통합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근본 가치란 예를 들자면 영국성(Britishness), 프랑스성(Frenchness), 한국성(Koreanness) 등이다. 즉 해당 사회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해치는 것을 용납하는 않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가치에 기초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상호문화주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러한 점에서 “상호문화주의는 전체적으로 주류 문화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다.”(Bouchard 2011, 465). 퀘벡은 상호문화주의라는 대항 이념을 통해 캐나다의 통합 이념에 균열을 내는 동시에 퀘벡에서는 프랑스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성을 진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단지 이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연방의 권력에 저항한다. 이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생산과 동행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반공간은 역으로 주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설적 기능을 자임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헤테로토피아는 현존 권력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타자화 기능을 통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또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히 저항의 공간도 아니고, 경계 공간(liminal space)도 아니다. 그것은 주류 사회와 그 관행으로부터 추방된 무엇인가의 흐름(travel)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Soldanha 2008, 2083). 이를 통해 보면 왜 주류가 퀘벡을 연방 질서 내에 묶어두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로서 퀘벡은 주류에 반하는 공간이자 경계 공간으로서 추방의 속성을 함유하고 있고, 바로 그 이유로 주류의 안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⁵⁾

또 다른 측면에서 퀘벡은 캐나다 연방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푸코는 거울의 비유를 통해 헤테로토피아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가상이지만 실제의 ‘나’를 비추어 주어, “나 자신을 향해 돌아”(Foucault 1984, 4)올 수 있도록 한다. 퀘벡은 캐나다의 국가성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내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15) 이렇게 말하는 것이 캐나다 중앙정부가 퀘벡주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의미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퀘벡은 온타리오와 함께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서 풍부한 자원, 물류 등의 측면에서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이것이 캐나다 연방이 독립을 추진하지 않는 주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 글은 익숙한 정치경제적 설명을 비껴서서 새로운 각도에서 분리 독립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다른 관점을 채택하였다.

권력관계가 잠재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예상할 수 있는 가까운 시기에 권력의 역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 상태의 불안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퀘벡은 캐나다인의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하고, 그들이 딛고 있는 단단한 지반을 흔든다. 이를 통해 주류는, 그것을 불편해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재점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다. 이러한 계기는, 그러한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동질적 사회에 비해 해당 사회의 지속하는 힘을 강화한다. 이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만이 통용되는 조직과 다양한 의견이 경합하는 가운데 자발적 합의를 선호하는 조직의 지속력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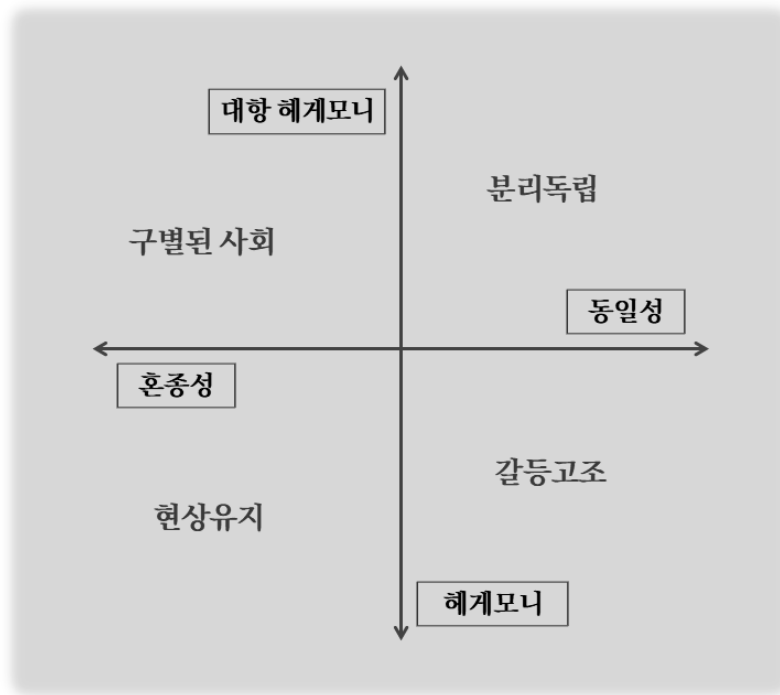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모든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는 모순적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사실 차이든 동질성이든 타자가 없다면 인식할 수 없는 범주이다.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타자가 없거나 그로 인해 ‘관계’가 멈추는 순간 헤테로토피아는 의미를 잃는다. 반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를 상징할 수 있다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주체는 여타 공간과의 관계 유지로 그 공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보다는, 역설적이고 모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더 큰 공간 내의 이질적 공간으로 존속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헤테로토피아가 드러내는 모순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질적인 차이를 그대로 안정화하는 것에 복무한다. 또한 양자 간에 흐르는 권력은 일방적이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위상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주류와 비주류, 즉 캐나다 중앙정부와 퀘벡의 지방정부의 이해가 수렴한다. 요컨대 양자는 상충하는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V. 헤테로토피아의 퀘벡, 미래 전망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에서 분석한 퀘벡에 근거하여 우리는 퀘벡의 미래와 관련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3장의 논의에 따라 분리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서 동일성과 혼종성을, 4장의 논리에 따라 지배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라는 힘을 상징해 볼 수 있다. 이를 교차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¹⁶⁾

16) 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평면에 그렸지만 3차원 공간이라고 상정해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상황 전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어찌면 상황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도식을 통해 몇 가지 가능태를 가늠해 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먼저 이 도식을 독해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X축과 Y축은 모두 각 방향으로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 인간이 구성한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0, 1은 있을 수 없다. 같은 논리로 네 가지로 제시된 기능태 또한 힘의 방향성(벡터)을 의미할 뿐 고정된 실체(완료태) 혹은 모델을 지시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경우에 지식은 매개로서 작동한다. 그림이 그려진 공간 자체가 권력관계와 힘의 각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력과 힘은 지식의 생산과 묵시적,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퀘벡의 미래 전망

먼저 X축은 3장에서 분석한 혼종성과 동일성을 지향하는 힘이다. 1960년대 조용한 혁명의 시기 이전 퀘벡은 주로 생활영역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나 본격적인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단계에서는 퀘벡 전체에서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동질성을 구축하기 위한 강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정치 영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Y축은 4장의 논의에 따라 헤게모니 축을 표현한 것이다. 위쪽은 대항 헤게모니의 힘이 강화되는 쪽이고 반대쪽은 지배 집단(영국계, 연방주의자 등)의 헤게모니가 유지, 강화되는 방향이다. 이 네 가지 힘의 교차와 상호 작용은 네 가지

방향성을 산출한다.

먼저 1사 분면, 즉 대항 헤게모니가 힘을 얻는 외중에 퀘백의 혼종성과 이질성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퀘백은 ‘구별된 사회’(distinct society)로서의 벡터가 높아질 것이다. 대항 헤게모니의 강화는 상호문화주의와 그것을 구현하는 제도적 실천이 관철되면서 프랑스성 혹은 퀘백성(Quebecness)이 유지, 강화될 때 가능하다. 혼종성의 유지는 퀘백의 동질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국내적 이주 등이 그러한 노력을 중화시키고 약화시킬 때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사실 이주(migration)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개폐 체계’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1사 분면은 4장에서 언급한 지배집단과 소수자의 이해관계 수렴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2사 분면은 대항 헤게모니와 동일성이 모두 높아지는 경우이다. 역으로 4사 분면은 정반대의 흐름을 가정한다. 동일성은 불어 사용의 강제, 소수 문화에 대한 규율과 통제, 민족주의 정당의 존속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각각의 방향은 분리 독립의 벡터가 강화되거나 현상유지(연방잔류)의 방향성이 힘을 얻는 모양새를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퀘백의 동일성의 정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주류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경우를 가정한 3사 분면은 퀘백과 연방정부의 경쟁과 갈등하는 힘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 무력 분쟁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 세력이 동일성의 동원을 통해 지배 질서에 저항을 조직할 경우 갈등 게이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추론해볼 수 있다. 캐나다와 그 내부의 퀘백주는 갈등이 표현되는 권력 관계라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내부에서도 권력 사이의 현상 유지와 저항이라는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피비우스 띠가 하나의 현상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러시아 인형과 같이 동일한 현상이 그 내부의 공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며, 정동(affect)이다. 영향을 받는 자와 영향을 주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캐나다 내부에서 퀘백의 분리 독립 운동은 부조화 속의 조화의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다.

VI. 열린 결론

지금까지 퀘백을 푸코가 제시한 공간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로 규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그것의 지식, 권력과의 연계를 살펴보고(2장), 이어서 그것의 주요한 기능에 초점을 두어

혼종성(3장)과 저항공간(4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혼종성을 둘러싸고 그것을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활용하려는 주류, 자신만의 개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질성을 심화하려는 비주류의 논의를 대비시켰고, 퀘벡을 근간으로 주류의 권력과 지식에 저항하는 소수자의 투쟁과 오히려 그러한 특질이 주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설적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힘의 각축을 비교적 간단한 도식을 통해 제시하고, 퀘벡의 미래를 예측해 본 것이 5장의 논의이다.

현재 캐나다는 연방제에 기초하여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제는 주 단위의 권력분점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관리하여, 큰 틀에서 국가 공동체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캐나다에서 연방주의 논쟁은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위해 퀘벡주에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불균형 연방주의”를 둘러싼 것이다(한양환 2001, 330). 퀘벡은 건설민족에 부합하는 자신만의 특권적 지위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퀘벡에게 불균형하게 부여되는 권리를 염오한다. 불균등한 권한 배분에 기초한 불균형 연방주의에 모든 주가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걱정선에 대해서는 각자 이견이 많다. 이것이 아직까지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헌법이 마련되지 못한 원인이다. 우리는 퀘벡의 미래는 연방주의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상에 따라 결론날 것이라고, 별 감흥 없이 말할 수 있다. 물론 협상의 과정에 퀘벡을 비롯한 캐나다의 다양한 주체들의 처지와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담담히 덧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퀘벡은 위와 같은 평면적인 분석에 입체감을 더해 준다. 퀘벡은 권력효과이자 지식이며, 담론이자 실천이다. 퀘벡이라는 공간은 캐나다의 혼종성을 상징하는 곳이자, 역사적 시간의 응축물이며, 과거의 기억·박탈, 승리, 패배·을 상기시키는 장소이다. 또한 퀘벡은 캐나다인에게 익숙한 질서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권력관계가 자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은유한다. 퀘벡은 이러한 메타포가 함유하는 권력과 담론 질서를 둘러싸고 불어제와 주류 간의 쟁투가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한다. 퀘벡의 미래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가 특권적으로 초점을 둔 분석-민족주의의 발흥, 그것의 역사적 기원, 두 번의 도전과 좌절, 유권자 선호 분석, 정당 배열, 헌법 협상-과 담론 분석이 병행할 때 보다 새로운 통찰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또한 풍부하게 될 것으로 본다.

어쩌면 캐나다는 공간 자체가 지구적 규모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헤테로토피아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번째 원칙으로 식민지를 거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는 식민주의자가 살고 있는 곳을 “난잡하고, 잘못 건설되었으며,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완벽하고, 세심하게 잘 구획된 또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Foucault 1984)이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는 식민지를 ‘보정’ 내지는 ‘보상’(compensation)의 의미를 가지는 헤테로토피아로 조심스레 규정한다. 소자(Edward

W. Soja 1995, 16)의 말대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신체와 선박과 같은 서식지의 보잘 것 없는 전술부터 지정학적 대전략에 상응하는 확장된 스케일(widening scales)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캐나다 전체를 하나의 헤테로토피아로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건설된 캐나다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가장 선진적 다문화정책을 마련한 국가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가 근대의 동일성을 문제시하는 탈근대적 성격을 함유한 것이라면 다양성과 차이, 혼종성 자체를 국민 정체성으로 제시하는 캐나다가 지구 공동체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푸코는 1966년 처음으로 헤테로토피아를 말했지만 책으로 출간된 것은 1984년이고, 1966년에 말했던 것 이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적 맥락에서 헤테로토피아가 가지는 위상, 예를 들자면 권력, 지식, 질서, 감옥, 병원, 방법론으로서 고고학, 계보학 등이 헤테로토피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이 글은 필자들 나름의 해석으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 지식, 권력을 연결하여 이론적 틀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퀘벡이라는 공간을 분석해 보고자 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이다. 헤테로토피아를 푸코의 지적 행로와 연결시킨 것이나, 이를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퀘벡에 적용하는 것이나 둘 다 어쩌면 비약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헤테로토피아라는 관점으로 분리 독립의 방향을 바라보는 퀘벡과 이를 막아서는 캐나다 연방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보다 입체적으로 민족 간의 관계를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은 비단 퀘벡뿐만 아니라 독립을 희원하는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상황에 적용하여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분석 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박은희. 201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인문연구 70, 83-114.
- 김미경. 2014.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인문연구 70, 161-206.
- 김수용. 2017. 캐나다의 헌법 개정 논쟁 과정과 쟁점. 법과 사회 54, 139-178.
- 문영석. 2009. 국가 안의 국가?: 퀘벡 분리주의의 전망. 국제·지역연구 18(4), 135-164.
- 박기순. 2017.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美學 83(1), 105 -141.
- 서동욱·진태원. 2017. 스피노자의 귀환. 민음사.
- 이경재. 2015.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58, 331-358.
- 이용승. 2010. 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요인 분석: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 조찬수. 2005. 퀘벡 분리주의와 신자유주의: 그 선택적 친화성의 정치경제적 설명. 국제정치논총 45(4), 379-401.
- 조혜경. 2016. 도스토옙스키 소설 『죄와 벌』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 연구. 노어노문학 28(1), 121-143.
- 한양환. 2001. 캐나다 퀘벡주의 분리 독립 문제와 불어권국가연합기구(O. I. F.)의 향후 위상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35(2), 323-343.
- 허경. 2011. 미셸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3(2), 233-267.
- Bouchard, Gérard. 2011. What is Interculturalism? McGill LJ 56(2), 435-468.
- Deleuze, G. 2003. 허경 역. 푸코. 동문선.
- Foucault, M. 1984. Of Other Spaces: Utopias and Heterotopias. Transl. J. Miskowiec. 출처: <http://web.mit.edu/allanmc/www/foucault1.pdf> (검색일: 2018. 1. 3.).
- Foucault, M. 1994, 2004.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 Foucault, M. 1998.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 Foucault, M. 2014.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 Hetherington, K. 1997. *The Badland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Topinka(2010) 재인용.
- Lipset, S. M. 1990. *Continental Divide: The Value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ew York: Routledge.
- Meadwell, H. 1993. The Politics of Nationalism in Quebec. *World Politics* 45(2), 203-241
- Mendelsohn, M. 2002. Measuring National Identity and Patterns of Attachment: Quebec and Nationalist Mobilization,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8(3), 72-94.
- Nadeau, R., Martin, P., & Blais, A. 1999. Attitude Towards Risk-Taking and Individual Choice in the Quebec Referendum on Sovereign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3), 523-539.
- Saldanha, A. 2008. Heterotopia and structural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9), 2080-2096.
- Soja, E. W. 1995. Heterotopologies: A remembrance of other spaces in the citadel-LA. *Postmodern cities and spaces*, 13-34. 출처: <http://spatialhumanities.unm.edu/Soja-Heterotopologies.pdf> (검색일: 2018. 1. 30.).
- Topinka, R. J. 2010. Foucault, Borges, Heterotopia: Producing Knowledge in Other Spaces. *Foucault Studies* 9, 54-70.
- CBC. www.cbc.ca
- Statistics Canada. www.statcan.gc.ca/eng/start

● 투고일: 2018.02.06. ● 심사일: 2018.02.06. ● 게재확정일: 2018.02.13.
--

Quebec as a Heterotopia: An Interpretation of Quebec's Separatism

Lee Yongseung (Daegu University)

Kim Youngjin (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Quebec's case of separatism which is a rising issue in many democracies in recent years. As the same is true for other countries, Quebec'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maintaining stateness of Canada. Although potentiality of independence of Quebec has declined since the referendum for independence in 1980 and 1995 was rejected, Quebec independence is a volatile issue that can be lifted at any time. The study approaches Québec'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unlike the previous politico-economic and socio-cultural analysis. In this article, Quebec is defined as heterotopia and Quebec's independence is analyzed in terms of hybridity and counter-space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 Through hybridity, we contrasts between mainstream who wants to use it as the basis of the state maintenance and minority who try to intensify the homogeneity, while strengthening its own opening and closing system. We also look at the struggle of minority who resisted the power and knowledge of the mainstream and the paradoxical outcome that such a labor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mainstream. Through a relatively simple scheme, the future of Québec is suggested into four directions: separation, distinct society,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heightening of conflict.

<Key words> Canada, Quebec, Separatism of Quebec, Foucault, Heterotopia